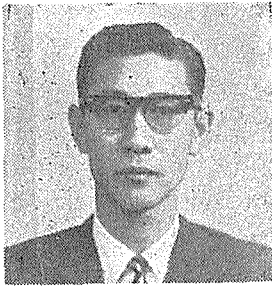


# 韓國 科學史의 새로운 理解 (1)

誠信女子師範大學教授 全 相 運



## 1. 自我의 再發見

19世紀末 激  
動하는 世界情  
勢 속에서 李朝  
는 그 政治的  
불안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다. 列強들은 近代 科學技術의 놀라운 발전을 誇示하면서 그것을 앞장 세우고 韓國에서 門戶의 開放을 강요하였다. 外國과의 통상이 시작되고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門戶가 세계를 향하여 開放되었다.

이에 따라 西洋의 新文明이 수입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西歐인들이 낳은 새롭고 놀라운 實驗科學의 성과와 産業技術의 所産들 앞에서 넋을 잃었고,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섭취하고 消化해 볼 겨를을 갖지도 못하고 惝 意識하기도 못한 사이에, 과학기술적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어버이들이 물려준 빛나는 과학적 전통마저 숨지게 했다.

우리 科學史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것은 自我를 發見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자극하였다. 開化의 선각자들은 民衆을 계몽하기 위하여 앞장섰다. 그중에서 특히 俞吉濬(1856~1914)의 著書「西遊見聞」은 계몽적 과학 사상을 담은 주목할 만한 논설과 주장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韓國의 西歐科學 도입 자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

하여 主體性的 확립을 강조하였다.

『…然한 故로 他人의 長技를 取하는 者가 決斷코 外國의 器械를 購買하거나 工匠을 雇用하지 勿하고 必先 自己國民으로 其才를 學하여 其人으로써 其事를 行함이 可하니 蓋人의 才操는 窮盡함이 無하거나와 財物은 有限한 者라, 萬若 自己國人이 其才를 修할진대 當場에 利할뿐 아니라 國中에 傳播하여 其効驗이 後世에 遺하기에 至하려니와 外國의 器械를 購買하면 其器械가 傷하는 時는 其工匠이 更點할디라 如何한 器械와 如何한 工匠으로 其事를 更行하리오. 其勢가 其器械를 更購하고 其工匠을 更雇하니 眞實로 如是할진대 我的 虛實하는 者는 財物이라. 若茲히 虛實하는 財物이 何處를 從하여 得來하리오. 필경은 百姓에게 其害가 歸할 따름 嗟呼라 開化하는 事가 他人의 長技를 取할뿐 아니오 自己의 善美한 者를 保守하기에도 在하니 大概 他人의 長技를 取하는 意向도 自己의 善美한 者를 補하기 爲함인 故로 他人이 才操를 取하야도 實狀있게 用하는 時는 則 自己의 才操라…』

그리고 그는 또한 과학이 가지는 累積的 特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才致있는 表現으로 그의 탁월한 科學史의 識견을 드러내고 자기의 전통을 저버리고 돌아볼 줄 모르는 경박한 풍조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韓國 科學史의 새로운 理解를 촉구하였다.

『…抑此 新奇하고 深妙한 理致는 舊世界에 不存하고 今日에 始有한 者 아니오, 天地間의 其自然한 根本은 古今의 差異가 無하대

古人은 窮格하기 不盡하고 今人은 窮究  
 하여 擲到한 者니 此를 由하여 觀하면  
 今人의 才識이 古人에 比하여 越加한듯하나  
 然히나 實狀은 古人의 草創한 者를 潤色할  
 따름이라, 火輪船이 雖曰 神妙하나 古人의  
 代身한 制度를 違하기는 不能하고 火輪車가  
 雖曰 奇異하나 古人의 造車한 規模를 不  
 由하던 不成할디오 此外에도 如何한 事物이든  
 지 皆然하여 古人의 成法을 離脫하고 今人  
 의 新規를 擧出하기는 不能하니 我邦에도  
 高麗磁器는 天下의 有名한 者며 李忠武公의  
 龜船은 鐵甲兵船이라 天下의 最先擧出한 者  
 며 校書館의 鐵鑄字도 天下의 最先創行한  
 者라 我那人이 萬若 窮究하고 又 窮究하여 便  
 利한道를 經營하얏드면 千萬事物이 今日에 至  
 하여 天下萬國의 名譽가 我邦에 歸하얏슬디  
 어늘 後輩가 前人의 舊規를 潤色디 아니함이로  
 다.』이렇게 숨막히는 정치적 변화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겨우 자기자신을 발견할 무렵, 日  
 帝의 쇄사술은 우리를 뒤흔고, 40년이란 긴  
 노예생활이 시작되고 말았다. 우리는 先祖들  
 이 걸어온 발자취를 미처 돌아볼 겨를도 없  
 이 異民族의 祖上과 그 유산을 우리것으로  
 強要당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더 잘 부리기 위하여  
 우리 것을 알잡아 보고 나쁜 버릇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것은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  
 달에 관한 영역에서 더 심했다. 그들이 그렇  
 게 정책적으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의 전통적 과학기술에 대한 과소평가와 무  
 관심을 일삼게 한 때는 여러가지 정치적 저  
 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가장 뚜렷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무  
 엇보다도 오늘의 이 世代가 科學과 技術의  
 世紀이며, 日本의 과학과 기술은 과거 우리  
 과학기술을 매개로하여 발달하였는데 그들  
 은 18세기까지도 李朝를 先進國으로 대접하  
 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조상들도 日本을 후  
 진國으로 여겨왔었기 때문에 西歐의 科學  
 技術을 우리보다 먼저 직접 받아들여 近代

化의 길에 들어서고 帝國主義의 침략을 감행한  
 그들로서는 支配者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  
 해서 정략적인 과소평가를 하였을 것이다. 이러  
 서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과학기  
 술이 보잘 것 없는 原始的인 수준에서 머무르  
 고 있었다는 先入觀이 머리속 깊이 뿌리박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西歐의 近代科學技術을 도입  
 하던 近代化 過程에서 뒤떨어졌었다.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科學技術史의 全道程  
 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생각해 버릴 수  
 는 없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분명히 그릇된  
 견해인 것이다. 그것은 李朝末, 새로운 西歐  
 科學技術의 도입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  
 의 不振相이 현저하게 드러나면서 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과학의 존  
 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간단히 부정해 버리기  
 에 이르렀다. 비약하는 근대과학의 발전기에,  
 불행하게도 가장 어두웠던 歷史的 한 시기에  
 처하게 된 우리 민족은 그 모습을 바라보기도  
 도 그만 현기증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日本 사람들에 의하여 교묘  
 하게 계획된 식민지적 과학정책으로 우리의  
 손으로는 연필 한 자루, 종이 한장, 잉크 한  
 병, 電球 하나도 제대로 만들줄 모르는 가엸  
 은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우리  
 의 과학기술적 落差는 심하여 갔고 그것은 우  
 리의 열등의식을 더욱 조장하는 要因이 되었  
 다. 어느듯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韓國의  
 科學技術을 과소평가 하려는 버릇이 몸에 배게  
 되었다. 그러한 열등감은 日帝의 식민지 정책  
 과 연결되어 우리의 民族的 自主意識 말살에  
 이용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우리의 역사책에도 우리 과  
 학에 대한 여러가지 자랑거리가 나열되었다.  
 그것은 학문적인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것보  
 다는 민족적 감정과 自主的 自我意識을 고취  
 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더 많았다. 거기에는  
 東洋最古를 자랑하는 천문대의 現存 遺物

인 경주『瞻星臺』를 新羅인이 세웠으니 우리 천문학은 古來로부터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했고, 高麗 靑磁器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요업 기술의 所産이라 했다. 또 우리 선조는 독일의 Gutenberg 보다도 200년이나 앞서『金屬活字』에 의한 활판인쇄를 시작 했다고 했으며, 세계 최초의 雨量計인 測雨器와 水標를 발명했고, 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 이순신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가지는 객관성과 실증적 방법은 우리에게 보다 학문적인 연구에 의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과 개발의 指標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과거 30년 동안에 벌써 여러 차례 국가적 뒷바침 아래 학계가 거의 총동원되어 일본 과학기술사의 학문적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日本學士院에서 「明治前 日本科學史」 20卷과 또 최근 日本科學史學會에서 「日本科學技術史大系」 40卷으로 결실시켰다. 그 결과는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에서 일본 과학기술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시도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노력을 할 줄 모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등 자랑에도 불구하고 세계 학계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을 도입 모방한 것이어서 독창성이 결여된 亞流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등감을 조장케 할 가능성이 짙은 우려가 있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값진 일은 대개 19세기나 20세기에 되었고 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견해는 전혀 잘못된 것이며, 가장 놀라운 성과는 최근에 얻어졌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성과이기 때문이라는데 불과하다고 20세기 최대의 科

學史家 G. Sarton은 말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중엽 이후의 우리나라 과학이 다른 나라에 뒤졌다고 해서 우리의 全歷史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뒤졌다고 보는 견해는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李朝時代의 '數學的' 수준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李朝 初期 雜科에 속하는 下級官吏 채용시험의 수학 문제 중에는 高次方程式과 不定方程式 및 二項係數의 "파스칼의 삼각법"과 같은 것들도 출제 범위에 들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번 보아 왔다. 일본의 저명한 科學史家 한분이, 임진왜란 때 倭兵이 韓國에서 빼앗아간 수학서적을 일본 수학자들이 消化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 말은 李朝 前期의 수학적 수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고 또 지나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알리고 노력조차 하지않았다. 이제 결론은 명백해졌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과학적 업적의 참모습이 요구되는 때도 없을 것이다.

## 2. 日本의 植民地 科學技術 政策

위에서 나는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열등의식을 조장케 한 주된 要因의 하나로써 近代化 過程에서의 우리 과학기술의 不振을 지적하였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不振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의 樣相과 深度를 헤아려 봄으로써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의 식민지적 과학기술 정책은 우리 과학의 「오늘」을 형성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게 했다는데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日本이 韓國에 대한 식민지적 과학기술 정

책은 1905년 乙巳條約의 불법적 체결로 그들의 統監을 두게 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1876년, 韓國에 대한 침략적 의도에서 강요된 通商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日本의 經濟的 進出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즉 高宗 30년(1893)에 韓國에 들어 온 外國 商船의 총수 1,322척(톤수 387,507ton)중에서 日本 商船은 956척(304,224ton)이나 되었으며, 그것은 상선의 전 척수의 72%, 총 톤수의 78%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日本 상인들은 韓國의 농촌에 綿製品·술·냄비·農器具·석유·染料·소금 등을 비싼 값으로 팔아서는 쌀·콩·金 등을 싼값으로 사서 폭리를 남기는 약탈적인 무역을 감행 하였으므로 韓國은 급격히 日本 상품 시장으로 化하고 자급자족하던 농촌 경제는 마침내 파탄의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후 日本은 韓國을 상품시장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淸과의 決戰까지도 불사하였고 淸의 세력을 韓國에서 축출하고 나서는 러시아의 세력마저 손을 떼게 하고 滿洲까지 삼켜

버리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기습을 단행하여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리하여 日本帝國主義의 침략은 노골화하였고 그들의 침략적 야욕은 乙巳條約으로서 결정적인 단계에 이른 것이다. 韓國에 統監府를 설치한 日本은 이 나라의 動脈인 交通과 나라의 신경인 通信을 강제 독점하였다.

鐵道와 通信은 처음부터 韓國과 韓國人의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시설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침략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침략자들이 놓은 것이었다.

開化 이후, 新文明과 동의어로 불리운 西歐의 새로운 과학과 기술은 이렇게 작게는 大衆의 소비 물자에서 부터, 크게는 나라의 동맥에 이르기까지 韓國人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었고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現代 韓國 科學 技術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계속되고 거듭되었다. 1910년, 나라가 망하고 日本이 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

## 海 外 篇

### 科學技術宇宙

#### ※ 世界の 原子力 技術差異 (原子力發電量)

世界에서 最初로 原子力 發電을 始作한 英國은 現在 約 340萬kw (11個發電所)를 發電하며 美國은 200萬kw (15個發電所)이며, 近來에 와서 프랑스는 120萬kw (7個發電所)이고 소련은 100萬kw, 西獨은 30萬kw (建設中인 것을 합하면 9個發電所에서 約 100萬kw)이다. 日本도 東海 發電所가 運轉을 始作하였고 福島에 原子力 發電所가 建設中이며 앞으로 10年 計劃으로 自主的인 技術을 完成하려고 推進中이다.

그런데 美國, 英國, 프랑스, 소련은 100% 國產인데 比하여 其他 諸國은 外國에서 導入 依存 狀態이다.

原子力船은 現在 美國, 소련이 갖고 있으며 西獨은 近來 第一船이 完成되었고 프랑스 伊太利가 建造 計劃이며 日本은 美國에서 技術 導入을 하여 建造計劃이다.

#### ※ 各國의 科學者 및 醫師들의 美國 移住 現況

近間 各國의 科學者 및 技術者들은 研究手當의 立地 條件이 좋은 美國으로 移住하는 數가 날로 增加함에 先進 各國은 美國으로 科學者 流出 防止對策으로 技術者들의 待遇 改善 및 歸國 促進費의 設定을 위하여 科學技術情報센타 設置를 構想하고 있다.

다. 日本의 武斷政治는 開化 이후 겨우 막트기 시작했던 이 땅에서의 새로운 科學技術 발달의 氣運마저도 짓밟아 버렸고 모든 資源은 그들을 위하여 수탈되고 산업은 파탄되었다.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들이 한국에서 해 놓은 것은, 침략적 수탈을 위한 몇개의 철도 부설과 토목, 건축(1914년 9월 朝鮮호텔 낙성,

1916년 7월 총독부 청사 기공, 1917년 10월 漢江인도교 완성, 1918년 10월 仁川 閘門式 독 준공 등) 그리고 1918년 6월 부터 조업을 시작한 兼二浦 製鐵所의 300톤급 용광로의 건설과 1919년 1월에 紡機 15,000杼와 織機 610臺를 설치하고 조업을 시작한 부산의 朝鮮紡織뿐이었다. 그나마도 日本의 국내 산업과 경쟁적인 산업은 원칙적으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日本의 식민지 과학 기술 정책은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日本의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에 편승한 好景氣를 겪고나서

유리한 資本投下의 市場을 한국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값싸고 풍부한 勞動力과 電力資源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이 가지는 軍需資源을 개발하여 大陸 침략의 兵站基地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6년에는 赴戰江의 水力電氣가 개발되기 시작 하였고 3년후에는 20만kw의 發電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流域變更式에 의한 수력발전 펌으로서 그 당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日本에서 처음으로 수력발전소가 완성된 1892년에서 무려 37년의 時差를 가진 것이다. 日本 資本家들은 이 水力發電所를 興南에 세워지고 있었던 窒素肥料工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하였다. 이 化學工場 또한 그 규모에 있어서 日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大工場이었고, 그 生産品 또한 硫安, 燐安, 암모니아와 그 製品 및 질소, 수소, 산소, 탄산 등의 압축 또는 액화 개스의 제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것이었다. 이 공장의 중심을 이루

◎各國의 科學者 및 醫師들이 美國으로 移住한 그 間의 現況表

| 國名   | 1956年            | 1962年            | 1963年            | 1964年            | 1965年            | 1966年            | 1967年 |
|------|------------------|------------------|------------------|------------------|------------------|------------------|-------|
| 카나다  | 2,546<br>(1,526) | 2,711<br>(1,622) | 3,219<br>(2,012) | 3,108<br>(1,969) | 3,137<br>(1,881) | 2,827<br>(1,660) |       |
| 英國   | 901<br>(461)     | 1,448<br>(806)   | 1,918<br>(986)   | 2,017<br>(984)   | 1,926<br>(953)   | 2,015<br>(732)   |       |
| 西獨   | 900<br>(543)     | 574<br>(278)     | 681<br>(308)     | 785<br>(338)     | 761<br>(373)     | 615<br>(252)     |       |
| 스위스  | 255<br>(98)      | 157<br>(58)      | 211<br>(69)      | 240<br>(91)      | 262<br>(86)      | 297<br>(63)      |       |
| 伊太利  | 198<br>(125)     | 126<br>(62)      | 123<br>(67)      | 73<br>(32)       | 98<br>(38)       | 185<br>(70)      |       |
| 프랑스  | 140<br>(59)      | 102<br>(54)      | 141<br>(50)      | 162<br>(76)      | 168<br>(58)      | 180<br>(61)      |       |
| 日本   | 27<br>(6)        | 43<br>(11)       | 135<br>(52)      | 49<br>(10)       | 44<br>(20)       | 124<br>(45)      |       |
| 低開發國 | 2,231<br>(1,138) | 3,197<br>(1,847) | 4,344<br>(2,047) | 4,152<br>(2,117) | 3,604<br>(2,021) | 5,540<br>(2,613) |       |

※ 上記表는 科學者와 社會學者를 합한 수이고, ( )은 醫師數임.

는 암모니아의 합성은 1920년에 처음으로 이태리에서 시작된 Casale법에 의한 것이었고, 1932년에는 유안비로 31만톤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었다.

日本은 이렇게 부전장의 전력개발과 흥남의 화학공장 건설로 한국의 산업구조를 重工業의 방향으로 전환케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상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 공장은 비록 이 땅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그것은 완전무결하게 日本人에 의한 日本人의 공장이었고, 한국 사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불과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인 기술자를 쓰려고 하지도 않았고, 길러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日本이 한국에 대한 工業政策은 더욱 급속도로 진전하였다. 그것은 1927~8년 이래의 일본산업계의 부진상태를 타개하고, 1931년에 일으킨 滿洲事變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日本의 大財閥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에 大工

場들을 건설하여 化學工業과 함께 紡績工業, 金屬工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工産額은 1925년에 총생산액의 17.7%였던 것이 1931년에는 22.7%로 증가하였고, 1936년에는 31.3%로 증가하였으며, 1939년에는 39%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도 化學工業은 1930년에 工産額의 9.4%밖에 안되던 것이 1936년에는 22.9%로 급증하였고 1939년에는 34.0%로 비약을 거듭하였다. 여기에 금속공업의 9%와 기계공업의 4%를 합치면 重工業은 47%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발전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軍需工業의 일방적이고도 기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科學技術教育에서도 이러한 식민지적 정책을 固守하였다. 日本은 한국에 하나 밖에 세우지 않은 京城帝國大學에 한국인이 科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理工學

### ※ 各國의 노벨賞 授與 現況

노벨賞의 授與는 1901년부터 今年까지 67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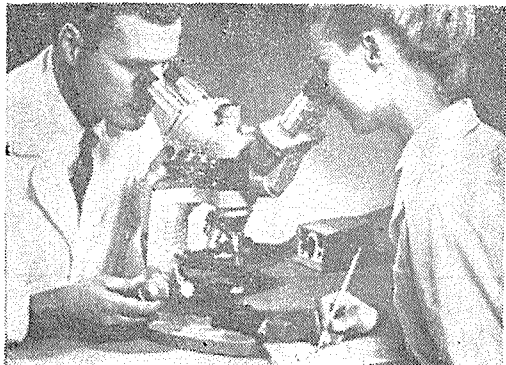
平和賞과 文學賞을 除外한 物理學, 化學, 生理學, 醫學의 自然科學部門 三賞에 있어서는 66年度까지 25個國에 受賞者數가 合計 251人이며 國別의 順位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 美國 70人 ② 英國 45人 ③ 西獨 45人 (戰前을 包含해서) ④ 佛國 20人 ⑤ 소련 9人 ⑥ 오란드 9人 ⑦ 스웨덴 8人 ⑧ 스위스 7人 ⑨ 오스트리아 7人 ⑩ 伊太利 5人 ⑪ 덴마크 5人 (12) 헝가리 3人 (13) 日本 2人 (13) 카

나다 2人 ⑫ 베루기 2人 ⑬ 國府 2人 ⑭ 호주 2人 ⑮ 알제틴 1人 ⑯ 체코 1人 ⑰ 아일랜드 1人 ⑱ 인도 1人 ⑲ 포르투갈 1人 ⑳ 스페인 1人 ㉑ 南阿共和國 1人

### ※ 各國의 大學 現況

요사이 해마다 늘어가는 日本의 大學은 世界 第二의 大學國으로 登場하여 現在 初大를 合해서 821校, 學生數는 124萬名, 初大를 除한 1940年 47校 大學, 學生數 8萬이었던 것이 現在는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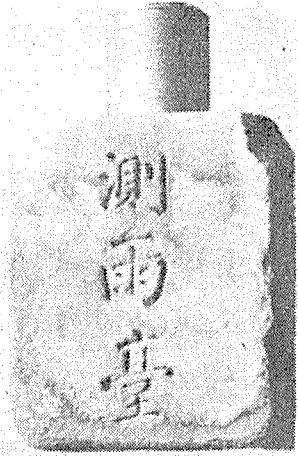
<꾸준한 研究>

部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1937년에 中日戰爭이 시작되어 고급기술자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므로서 1938년에 理工學部를 설치하였지만, 한국인 학생은 14명(1941년)에 불과하였고 1943년에는 日本人 95명에 대하여 한국인 38명이었으니 人口比例로 보면 한국인은 거의 무시할만한 숫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工科系 專門學校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즉 1943년 京城高等工業學校의 학생수를 보면 日本人 475명에 대해서 한국인은 68명으로 7:1의 비율이었고, 京城鑛山專門學校는 4:1, 釜山水產高等學校는 6:1의 비율로 日本人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日本은 이렇게 한국인에게는 되도록 高等技術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하지 않았다.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1945년 日本이 한국에서 물러난뒤 한국 과학기술은 온통 혼란에 빠져 버렸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그 영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次欄에 계속)

◇ 參考文獻 ◇

- 趙璣濬 韓國近代經濟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 (1965)
- 川合彰武 朝鮮工業, 現段陣 (1943)
-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1966)
- 俞吉濬 西遊見聞 (1889)
-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1964)
- 李基百 韓國史新論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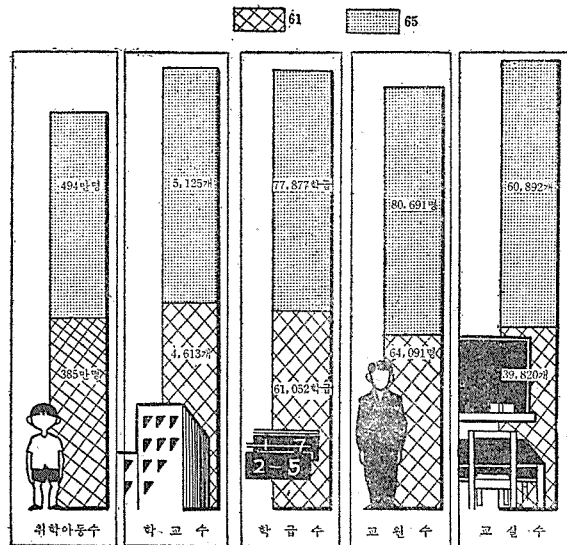


大學, 學生數 104萬餘名이다.

68年度 開校 豫定 申請大學校도 14校 初大도 21個의 大學이나 된다.

歐州 諸國은 一般的으로 大學이 적으며 英國은 至今 42校 美國은 2,200 校, 學生數 540萬名이므로 世界 第一의 大學國이다. 소련은 1965年度에 754校이었으나 지금은 急增하고있는 것 같다.

韓國은 綜合大學이 21校, 單科大學이 46校, 初大 21 大學, 專門校 19個校이며 來년에는 6個 大學이 新設될 예정이다. (P117 으로 계속)



<우리나라 의무 교육 현황>

科學技術뉴스